



John 17

요한복음 17
Tape #8085
By Chuck Smith

Let's turn in our Bibles to the seventeenth chapter of John. As I mentioned this morning, as we come into chapter seventeen, it is like entering into the holy of holies as Jesus is praying to the Father. 이제 우리 성경의 요한복음 17장으로 가 보자. 내가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을 읽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린 기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These words spake Jesus, and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is come (17:1);

From the first part of John's gospel, Jesus was aware of the hour that was coming. When at the beginning of His ministry, He was in Cana of Galilee at the wedding feast and it ran out of wine and His mother suggested by the statement, They're run out of wine, that He may correct the situation, He answered and said, Woman, what have I to do with thee? My hour is not yet come (John 2:1-4). Premature. 요한복음 첫 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줄곧 이 다가올 때에 대해 인식하고 계셨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그분은 가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신 적이 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그분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린 후 그분이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요 2:1-4). 시기상조라는 말이다.

In the seventh chapter, the thirtieth verse, it said, "They sought to take Him: but no man laid hands on Him, because His hour was not yet come" (John 7:30). The eighth chapter verse twenty, "These words spake Jesus in the treasury, as He taught in the temple: and no man laid hands on Him; for His hour was not yet come" (John 8:20). John 12:23, "And Jesus answered them, saying, The hour is come, that the Son of man should be glorified." Of course, this was at the passover meal with His disciples there on the same evening.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이런 말씀도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 12:23). 물론 본문의 구절은 그날 저녁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유월절 기념 식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다.

John 12:27, "Now is My soul troubled; what shall I say? 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but for this cause came I unto this hour." John 13:1,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Jesus knew that His hour was come that He should depart out of the world un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ich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unto the end," or to the uttermost. And now in John 17, "These words spake Jesus, as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is come."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 12:27).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이 구절에서 '끝까지'라는 말은 '전력을 다하여'라는 의미이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Jesus has had His final words with His disciples prior to the cross. He finished those words in the sixteenth chapter of John as John in the last verse makes mention.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that in Me you might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That was His final words. They were words of comfort. They were words of peace. They were words of encouragement, "Be of good cheer." They were words of victory,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마무리되었다. 16장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 16:33). 이 마지막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었다. 평안을 주는 말씀이었다.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 “담대 하라.” 그것은 승리의 선언이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Now He no longer talks to His disciples but now He is talking to the Father. “These words spake Jesus, as He lifted up His eyes to heaven, and said, Father, the hour is come.”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께 말씀 드리기를 시작하신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glorify thy Son, that thy Son also may glorify thee (17:1):

This prayer of Jesus that the Father would glorify the Son is really a prayer that He might go to the cross. It isn't praying that He might receive the glory that He had before the world ever existed. He will pray for that presently. But in this first petition, He is praying about the cross. It is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that God's love is to be manifested to the world.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였는데, 실제로 이것은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이것은 아들이 창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분은 잠시 후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실 것이다. 그러나 여기 첫번째 간구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야 하였기 때문이다.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God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1 John 4:10). “For God has commended His love towards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the ungodly” (Romans 5:8). And God will be glorified through the cross because there is God's manifestation of the extent of His love for you. “If God spared not His own Son, but delivered Him up for us all” (Romans 8:32). So in the cross of Christ Thy glory.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8).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롬 8:32).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Paul said, “God forbid that I should glory, save in the cross of Jesus Christ” (Galatians 6:14). Jesus is praying now concerning the cross. “Father, glorify Thy Son,” through the death upon the cross so that “Thy Son also may glorify Thee.” In verse four, He said, “I have glorified Thee on the earth” (17:4). And now He is praying for this that He might glorify Him.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 6:14).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하여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4절로 가면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7:4). 그러므로 지금 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As thou hast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17:2),

Jesus in the last part of Matthew said,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Matthew 28:18). “As You have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였다.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You have given him (17:2).

Jesus gives us eternal life.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this life is in the Son. And He who has the Son has life” (1 John 5:11,12). John said, “He that believeth on the Son of God hath everlasting life” (John 3:36). Notice that He makes mention of those that “Thou has given Him.”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일 5:11,12).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요 3:36). 본문에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는데 유의하라.

Throughout this seventeenth chapter as He is talking to the Father, over and over again He makes reference to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In verse six, “I have manifested Thy name unto the men which Thou gavest Me out of the world: Thine they were, and You gave them Me; and they have kept Your word” (17:6). Verse nine, “I pray for them: I pray not for the world, but for them which thou hast given me” (17:9). Verse eleven, “And now I am no more in the world, but these are in the world, and I come to thee. Holy Father, keep through thine own name those whom thou hast given me” (17:11). Verse twelve, “While I was with them in the world, I kept them in thy name: those that thou gavest me I have kept” (17:12). And then in verse twenty-four,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which thou hast given me” (17:24). Over and over again He is referring to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17장 전체에 걸쳐 아버지에게 기도 드리는 동안,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신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Jesus said, “No man can come to Me except the Father draw them” (John 6:44). If you have come to Jesus Christ, rejoice. Because it means that you are one of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This age-old debate concerning divine election,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 human responsibility of man is one that will never be resolved in argument. People usually take one side or the other. And then they argue that side ad infinitum. Goes on and on and on. It has been a very divisive argument in the church. There are those today who are pursuing the argument to tearing down the body, lashing out against anyone who does not agree fully with their position. And their attitude is totally wrong. It goes all against what Jesus is praying for the church here in the seventeenth chapter.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 6:44).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자라면, 기뻐하기 바란다. 그것은 당신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신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둘러싼 이 해묵은 논쟁은 언쟁을 통해서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쪽 편에 서거나 아니면 저쪽 편에 서곤 한다. 그리고는 그 편을 들면서 한도 끝도 없이 논쟁을 한다. 그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우겨댄다. 예정론을 둘러싼 논쟁은 교회를 크게 분열시켜 온 것들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에도 그 논쟁을 지속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맹비난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태도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그것은 여기 17장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드리신 기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다.

His prayers that we might be united, that we might be one, and yet they are willing to bring the division by their insistence that theirs is the only correct position. I will frankly confess that after years in the ministry and the study of the Word, I cannot reconcile in my mind the sovereignty of God with the human responsibility of man. I am convinced that the Bible teaches both. I cannot understand how they both can be true but I believe they are because God did not call me to understand, only to believe. And so He understands

and I'm satisfied with that. And so Jesus is speaking here and as He speaks here, He is speaking on the aspect of God's chosen, God's sovereignty, God giving them to Me. "All that You have given to Me." 그분은 우리가 연합하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고집함으로써 교회를 가차없이 분열시키고 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해 오고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나는 아직까지 예정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신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롭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있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믿으라고 부르신 것 뿐이지 이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실 것이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Someone asked me this morning about the verse,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Matthew 22:14). I believe that God has called all men to repentance. I believe that God is "not will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come to salvation" (2 Peter 3:9). I believe that God has opened the door of salvation to every man. I don't believe that anyone who has ever come to Jesus Christ has been rejected. I believe that the door is wide open for every man to come.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Jesus said, "And he that cometh un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John 6:37). And so though I believe that the invitation is to all men, I realize that all men have not accepted the invitation. Not all men have responded to the love of God. Not all men have submitted their lives to Jesus Christ. I also realize that God being omniscient knows those who will and those who will not. So those that will respond, Jesus refers to those as those that Thou hast given Me. 어떤 사람이 오늘 아침에 내게 이 구절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 22:14).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행하여 회개하라 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벧후 3:9)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사람치고 거부 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요 6:37).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믿는다: 모든 사람이 초청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모든 사람이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또한 이렇게 믿는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누가 응답할 것이며 누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응답할 자들을 가리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고 칭하셨던 것이다.

There were many people who began to follow Jesus but not all continued. When He began to say some difficult things, they followed Him no more. So here is the one side of the coin. Those that Thou hast given Me. I'm still glad that the Father chose me and gave me to be one of the disciples, one of the followers of Jesus. "As Thou hast given Him power over all flesh that he should give eternal life to as many as Thou hast given Me." Fascinating scripture in Acts that says, "And as many as were ordained to eternal life believed" (Acts 13:48). Again the sovereignty of God. And yet, there is that human responsibility. I must come. I must surrender. God is not going to save me unless I repent, unless I surrender my life to Jesus Christ. So how do you explain it, I can't.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 모두가 끝까지 따르지는 못했다. 예수님께서 몇몇 어려움에 대해 말하자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을 좇지 않았다. 여기 동전의 한 면이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책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여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매혹적인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행 13:48)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그런데 한편 인간의 책임도 있다. 내가 다가와야만 한다. 내가 굴복해야만 한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는가? 나는 그것을 조화롭게 설명할 수가 없다.

And this is life eternal [this is the path 이것이 바로 길이다], that they might know thee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thou hast sent (17:3).

That's eternal life, knowing the only true God. That acknowledges that there are many false gods. Again God is not a name. God is a designation. Lord is not a name. Lord is a title. God is a designation of whatever it is that masters your life. That's your god. Lord is a title of that one which rules over you. There's only one true God. There are many false gods. The Bible says, "The gods of the heathen are many". And of course, you get into some of the polytheistic religions and they deified everything. Even the emotions, they had a god for every emotion. The god of anger, the god of joy, the god of peace. Every emotion they had a god for. But there's only one true God and eternal life only comes by knowing the One true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who He sent into the world.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거짓된 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영생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부여하는 칭호이다. 주님은 일개 명칭이 아니다. 주님은 권한을 부여하는 호칭이다. 하나님이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를 가르치는 칭호이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란 여러분을 통제하는 존재에 대한 호칭이다.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거짓된 신들은 많이 있다. 성경은 "이방인의 신들이 많다"라고 말한다. 다신론주의 적인 종교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만물을 신격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감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그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 분노의 신도 있고 기쁨의 신도 있으며 평안의 신도 있다. 모든 감정에 대해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영생은 그 진실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세상에 강생하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이다.

Now Jesus said,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I have glorified thee on the earth: I have finished the work which thou gavest me to do (17:4).

Back in the fourth chapter as Jesus is talking to His disciples at the well there in Samaria where He had just met the woman and she had gone back into town to get her live-in lover and the other people that come out and hear the words of Jesus, the disciples when they returned from town with the food, they offered to Jesus and He didn't eat and He said, "I have meat that you don't know about. My meat is to do the will of the Father, and to finish His work" (John 4:34). 14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가에서 담화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거기서 그분은 한 여인을 만나셨었는데,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 자기의 동거 애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물가로 나아왔다.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드렸으나 그분은 드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We read in Genesis that in seven days or six days,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life forms that are in them and on the seventh day, God rested from His work. But when man sinned and sin entered the world through man and death by sin, then God began a redemptive work. He first of all chose a family, the family of Abraham through which to send the Redeemer. Then later on, He narrowed it down to the family of David. But God's work of redemption to redeem the world back to God, to give redemption for mankind, that work God began right after man sinned, the plan of redemption. And Jesus came to finish the work of redemption so that man would not have to be a slave to the flesh or to sin but could be redeemed from the power of sin to serve the living God. Jesus is declaring here, "I have finished the work which Thou gavest Me to do."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면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쉬셨다고 한다. 사람이 범죄 하여 죄가 사람을 통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사망이 죄를 타고 들어오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먼저 한 가문을 선택하셨으며,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구속자를 보내시려 하셨다. 시간이 지나자 그 가문은 다윗 가문으로 그 범위가 좁혀졌다. 하지만 세상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되돌리고자 하는 구속 사역은 인간이 범죄 한 직후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 계획은 그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인간은 더 이상 육신이나 죄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완성하였습니다.”

We remember in the nineteenth chapter there as Jesus is hanging on the cross, it said He bowed His head and said, “It is finished” (John 19:30).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I’ve done it. He has accomplished it. He’s talking about the cross in these first few verses: “Father, glorify Me that I might glorify You. I’ve finished the work that You gave Me to do.” 19장으로 가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은 고개를 숙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 이루었다” (요 19:30). 또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이는 ‘내가 그 일을 다 하였습니다. 내가 그 일을 성취하였습니다’라는 의미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처음 몇 절에서 그분이 드리신 기도의 내용은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And now, O Father (17:5),

Now He’s referring to the heavenly glory,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영광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이다.

glorify thou me with thine own self 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thee before the world was (17:5).

We can only imagine the glory that was His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The sam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by him;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14). 우리는 그 영광이 처음부터 그분의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14).

We are told in Colossians that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were all things created, and for him: [the object of creation] And by Him all things are held together” (Colossians 1:16,17). We are told in Philippians that He was “in the form of God, and thought it not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The glory that He had with the Father before the world ever was. He’s asking now for a return to that place. “Being in the form of God, thinking it not robbery or something to be grasped to be equal with God: He humbled Himself, or emptied Himself, and He took on the form of man: became a servant, obedient unto the Father,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Wherefore then God hath also highly exalted him” (Philippians 2:6-9).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 1:16,17). 또한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빌 2:6-9).

He’s praying now that He might again have that glory that was once His that He left to come to this earth, to be despised and rejecte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sin. And now Father, allow Me to return to that

place of glory. And we read that “God has highly exalted Him, given Him a name above all names: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9-11). So God’s glory, the Son’s glory, that’s what it’s all about. Give Him glory, all ye people. For He said, 예수님은 지금 이전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다시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 영광을 버리고 그분은 이 땅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어 죄의 속전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이제 아버지여, 그 영광스러운 지위로 나를 복귀시켜 주소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도 읽을 수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9-11). 이런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만민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I have manifested thy name unto the men which thou gavest me out of the world: thine they were, You gave them to me; and they have kept thy word (17:6).

He’s talking now about the disciples. Those that the Father has given to Him out of the world. They were yours, You’ve given them to Me; and they have kept Your word. 그분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세상 중에서 뽑아내어 그분에게 주신 자들이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이었는데, 당신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Now they have known that all things whatsoever thou hast given me are of thee (17:7).

The disciples began to realize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Whatever belongs to the Father belongs to the Son. Whatever belongs to the Son belongs to the Father. They’ve come to know that whatever has been given to Jesus really belongs to the Father. We all belong to Him. 제자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를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에게 속한 것은 모두 아들에게도 속한 것이로구나. 아들에게 속한 것은 모두 아버지에게도 속한 것이로구나. 그들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모두 실제로 아버지의 것이로구나. 우리도 모두 그분께 속한 것이로구나.

For I have given unto them the words which thou gavest me; and they have received them, and they have known surely that I came out from thee, and they have believed that You did send me (17:8).

He’s speaking of the disciples and of the faith that they had come to in believing that He was sent and that He brought to them the word of God. 그분은 지금 제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여준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I pray for them: I pray not for the world (17:9),

Remembe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But here Jesus says, I don’t pray for the world. That is, He’s not praying for the world right now. I’m praying for them. The reason why He wants us to be one, that the world may know. His heart is still for the world.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But right now, Lord, I’m praying for these that You’ve given to Me, for the disciples. I’m not praying for the world generally right now.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지금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그분이 그토록 원하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오니, 그들은 당신이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나는 지금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but specifically for those which You have given Me; for they are Yours. And all mine are thine, and thine are mine; and I am glorified in them (17:9,10).

There is an interesting passage in Ephesians that speaks about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Ephesians 1:6). Here Jesus said, I am glorified in them. They’re Yours but they’re also Mine, and they are Mine and they’re also Yours. Again, the Father and the Son inseparable. But we become His and He is glorified in us. How? By our faith and by our trust and by our obedience to His word. By my faith and trust and obedience, the Father’s glorified. He’s just, Well that’s My Boy! 에베소서에는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엡 1:6)에 대해 말한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당신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당신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아들과 아버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셨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다. 나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분은 ‘참으로 잘 했구나,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You remember with Job how God was bragging about Job. Have you seen my servant Job? Good man, upright. He loves good, he hates evil. God was glorified in Job because of his commitment. To the praise of the glory of His grace. God has manifested His grace on you. God receives glory through your praise at the recognition of His grace. Whenever God manifests His grace, He does these wonderful, beautiful things for us and from our hearts, there just rises that spontaneity of praise and thanksgiving. O Lord, You’re so good. Thank You, Lord. God, You’re so wonderful. God’s glorified through those praises that we offer to Him. In the spontaneous response to the manifestations of His love and His grace towards us. Here Jesus is praying and He declares in the prayer, I am glorified in them. 여러분은 옴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옴을 얼마나 칭찬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의 종 옴을 보았느냐? 선하고 올곧은 사람이다. 그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옴의 헌신 된 삶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이 그분의 은혜를 인식하고 찬미를 올릴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나타내보이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는 찬양과 감사가 자연적으로 울어 나오게 되어 있다. 오 주여, 당신은 너무도 선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은 너무도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통하여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가 즐거이 반응할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고 계신데, 그 기도 속에서 그분은 내가 저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습시다 라고 선언하신다.

And now I am no more in the world (17:11),

His already committed to the cross. And so He talks of the cross as though it were a past fact. He speaks of it as “I have finished the work.” He’s committed and He speaks of it as though it was already done because He knows He’s going to do it. “I am no more in this world.” 그분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인 양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빗대어 이르시기를 “내가 일을 다 마쳤습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것에 대해 언급하셨던 것이다. 자기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but these are in this world (17:11),

I’m going to be leaving this world but they’re going to be here.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나, 저희는 여기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Holy Father, keep through thine own name those whom thou hast given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17:11).

And so now He prays that the Father will keep us through His name. As I mentioned earlier, God is not His name, that’s His designation. Lord is not His name, that is His title. Yahweh is His name. Today we use the term Jehovah. We are referring to the same but Yahweh is His name. And the name Jesus is one of those compound names of Jehovah. It is a shortened form of Jehovah Shewa, which means Jehovah is salvation or

Yahweh is salvation. Yeshua in the Hebrew, and it's just the shortened form of Yahweh Shewa. Yahweh is salvation or we use the "j" pronunciation today, Jehovah Shewa. 그러므로 이제 그분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호칭일 뿐이다. 주님도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칭호일 뿐이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이다. 오늘날에는 여호와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이름들을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실은 야훼가 그분의 이름이다. '예수'는 여호와와의 복합 명칭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여호와 쉘와'의 준말인데,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다.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 쉘와'의 축약형일 뿐이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제이(j)" 발음을 살려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다.

"Keep through Thy name." We are kept through the power of Jesus Christ and the name of God. "The name Jehovah," in the proverbs, says,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neth into it, and are safe" (Proverbs 18:10). In the time of temptation, have you ever run into the name of Jesus? Have you said, Oh Jesus? Time of difficulty. Time of danger. Have you fled into that name? How many I flee into that name! I see danger approaching, I say, Oh Jesus, help. The strong tower, the righteous right into it and are safe.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킴을 받고 있다.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 18:10).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 의지해 본 적이 있는가? '오 예수님' 하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험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 이름 아래로 피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피신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면 나는 '오 예수여, 도우소서'라고 말한다. 강력한 망대가 있으니, 의인이라면 곧바로 그리로 달려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으려 할 것이다.

While I was with them in the world, I kept them in thy name: those that You have given to Me I have kept, and none of them is lost, but the son of perdition;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17:12).

Those that You gave to Me, talking about the twelve disciples, I have kept, none of them is lost, except the son of perdition; which is a reference of course to Judas Iscariot. There's something interesting about Judas Iscariot. Jesus said, "Have I not chosen twelve of you, and yet one of you is the devil" (John 6:70)? It's interesting that here Jesus refers to Judas Iscariot as the son of the devil, son of perdition. Interesting inasmuch as that is also the title of the antichrist. '저희를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는 열 두 제자를 가리킨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었으니, 오직 멸망의 자식을 빼고는 그들 중 하나도 멸망치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란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다.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가 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 6:70)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악마의 자식, 파멸의 자식'으로 지칭하신 것은 흥미롭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In Second Thessalonians chapter two, as Paul is talking about the antichrist, he refers to him as the son of perdition and those are the only two places where this title is used. Jesus referring to Judas Iscariot and Paul referring to the antichrist, which gives rise to the opinion of some that Judas Iscariot will somehow be the antichrist, the son of perdition. It's sort of a long shot but who knows?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멸망의 아들로 지칭한다. 본문과 그 구절은 성경에서 그런 호칭이 사용된 유일한 곳이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으며, 바울도 적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그런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어떤 식으로든 적그리스도 즉 멸망의 자식 역할을 떠맡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가망성이 희박한 예측이기는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는지 말이다.

And now I come to thee; and these things I speak in the world, that they might have my joy fulfilled in themselves (17:13).

The fullness of joy, that they might be fulfilled, Lord in this joy. 저희로 하여금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I have given them thy word; and the world hates them,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17:14).

Back in the fifteenth chapter verse nineteen, you remember that Jesus said, “If you are of the world, the world would love its own: but because you are not of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erefore the world hates you” (John 15:19). In chapter sixteen, “These things have I spoken unto you, that you should not be offended because they’re going to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 the time is going to come, when whoever kills you will think that they’re doing God a service. And these things they’re going to do unto you” (John 16:1-3). So He speaks to the disciples about how that the world hates Him and of course, they’re going to manifest that hatred on the morrow. Actually, it’s on the same day in the Jewish reckoning. They would be manifesting that hatred by putting Him on the cross. He is now in His prayer for them. Praying that and He’s making mention of them, “I’ve given them Thy word and the world hath hated them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여러분은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9).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 16:1-3).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미워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물론 세상은 그 다음날 곧바로 그런 증오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사실, 그 날은 유대인의 방식대로 하면 동일한 날에 해당하였다. 그 날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인해서 그 증오심을 노출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I don’t pray that You should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would keep them from the evil that is in the world (17:15).

We are here in the world to fulfill the purpose of God and that’s the reason why God leaves us here. If God did not have a purpose for us being here, He surely wouldn’t leave us in this dark world. But He leaves us that we might be a light to this dark world. That we might be as salt. That is a preserving influence in the world. As Jesus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3,14). And so that we might bear witness of God’s love, that we might show the world through our love for each other and our love for Him that Jesus Christ indeed is the Son of God sent into the world to be the Saviour of all who will believe in Him. We are here for that one purpose, to glorify Him and give testimony and witness to the world of Jesus Christ. 우리가 여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다 남겨두신 것이다. 만일 우리를 여기에다 남겨두실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보면, 이 어둔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하시기 위함일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일 것이다. 소금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3,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하여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진정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바로 이런 목적이니 즉,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함이다.

God loves you so much, He really doesn’t want to leave you in this mess, in the world. But it is necessary that He have a light in the world and so you are here for that one purpose of bringing light and bringing hope and bringing the word of God to others. Any other thing that you do is just really, I can’t think of the word that I want to use, but it’s superfluous or unnecessary. There’s one necessary purpose for you and that’s to bear witness of Jesus Christ to the world. That’s it. So He didn’t pray that God will take you out of the world yet. There’s a purpose and a plan that God has for you and that you might fulfill that purpose. But

in the meantime, that you might be kept from the evil that is in the world.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진실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 혼란 속에다 남겨두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세상을 비출 빛을 남겨두셔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 여러분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갖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외의 일은 (이 말이 적절할는지 모르나, 나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므로 그저 덤으로 하는 것 뿐이다. 여러분이 해야 할 필수적인 일 하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하나님께 아직 간구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며 계획이니, 곧 여러분은 그 일을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Our world is so fraught with evil. It is more prevalent than I think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man. Because of the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this generation is exposed to more worldliness, more sin, more evil than any other generation since Adam. Now the time of Noah it got so bad that the thoughts and the imagination of man'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But they didn't have the means of permeating their world so fully and completely as our world is permeated with evil. And so the prayer of Jesus is that you might be kept from the evil. Those forces of evil that dominate the world system.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으로 꽂 들어차 있다. 내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이 만연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를 사는 이 세대는 아담 이후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죄와 악에게 노출되어지게 된 것이다. 노아의 시대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던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온통 사악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악에 물들지는 않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전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17:16).

Ever feel like you're sort of an alien? Have you ever said, I really don't belong here. When I read of stuff that's going on, I feel I can't believe this. It's so prevalent that the evil. Reading of this little girl having a party and waiting in the front of the house for the guests to arrive, and car drives up and they shoot her, kill her. And her friend that's in the yard with her is shot. And then drive off. I can't imagine that. I read of those things and I think, Where did they come from? These people that have such little regard for someone else's life. Senseless killings. Where do they come from? The world in which we live is a violent, corrupt place. 여러분은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진정 여러분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살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조그만 한 소녀가 파티를 벌여 놓고는 집 문간에서 손님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녀를 향하여 총을 난사하여 즉사 시킨다. 그녀와 함께 뜰에 서 있던 남자친구에게도 방아쇠를 당긴다. 그리고 저격자들은 유유히 사라진다.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책에서 읽을 때 나는 도대체 저들이 어디서 온 자들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타인의 생명을 티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출신들인가? 무모한 살인을 저지르는 저들은 대체 어디서 온 자들인가?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다. 극악무도하고 타락한 지구촌의 사람들이다.

In the times of Noah,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it said. Jesus said that when He comes, "as it was in the days of Noah, so shall it be at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Luke 17:26). Surely the Lord is coming soon. Even as God judged the world of Noah's days, so He will judge this world because of its sin. "They are not of the world," thank God for that, "even as I am not of the world." 노아 시대 때, 세상은 난폭하기 그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오실 시대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눅 17:26).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우리 시대의 이 시대의 세상도 심판하실 것이다. 모두가 죄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그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So set them apart through thy truth: for thy word is truth (17:17).

Set them apart from the world. Separate them from the world, Lord, through Thy truth. The word of God that washes us, that cleanses us from the defilement of the world. How important it is. Jesus said, “Now you are clean through the word which I have spoken unto you” (John 15:3).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소서. 주여,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며,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 15:3).

As I was saying this morning, we’re exposed all day long in the workplace or at school or whatever to the corruption of the world, to the filth of the world, till when we come home having lived in the world, corruption. We feel like we need a bath inside just to get cleansed. To sort of wash out the pollution that has been poured into our minds. The garbage that’s been dumped on us. And thus we need to get into the word daily, into the word that it might have that cleansing effect in our lives. Jesus said,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아침에도, 우리는 학교에 있든 직장에 가 있든 끊임없이 세상의 부패와 오염에게 노출되고 있다. 우리가 분향에 도달하기 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부패와 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목욕을 하여 몸을 씻은 후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더러움을 씻어내야 한다고 느껴질 것이다. 우리에게 퍼부어진 쓰레기를 닦아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As thou hast sent me into the world, even so have I also sent them into the world. An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I set myself apart 내가 나를 따로 떼어놓사오니], that they also might be sanctified through the truth (17:18,19).

The truth of God that sets you apart, that frees you, washes you.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으며, 자유롭게 하며, 깨끗하게 할 것이다.

Neither do I pray for these alone (17:20),

The first petitions were concerning Himself. The next petitions were concerning His disciples. And these final petitions He goes out beyond just that immediate little band. 첫 번째의 간구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의 간구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간구는 눈앞에 있는 이 작은 무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but to all of those who will believe on Him through their word (17:20);

So if through the reading of the Bible, you have come to a faith in Jesus Christ, then you are included in the final petitions of this prayer of Jesus. He now reaches out to all of those who will believe on Him through their words. And what is His prayer? 만일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드리신 이 마지막 탄원의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다. 그분은 지금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다.

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17:21):

How the divisions in the church, squabbles, the fightings, how they must hurt the heart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whose prayer is that we might be one. It doesn’t mean that we have to agree on every point. Surely there is room for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cripture. And surely there is a place for each of the denominations. And the gather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eople.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신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인가. 이 말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경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각각의 교단이 설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있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일 수도 있다.

I had a lady come up to me after service this morning who was quite upset because during the singing of the choruses, she decided she was going to stand up and one of the ushers asked her to sit down and she was

very ungracious in her response but she came up to me afterwards and was really quite upset and angry. Why don't we allow people to stand up when we are worshipping? And I said, Because by your standing by yourself, it draws attention to you. We're not interested in the people having their attention drawn to you. We want their attention focused on Jesus Christ. And it is distracting. Well then, is it a rule of the church? Where do you find it in the Bible? Well, the Bible says if my liberty causes a weaker brother to be offended then I won't exercise that liberty as long as the world lives. And I said, it offends people when you stand up and draw attention to yourself. She went on. 오늘 아침 예배가 끝났을 때 한 부인께서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난 모습이였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일어서서 그 찬송을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서 있는데 한 안내 집사님이 앉아 있으라고 제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런 조치가 매우 무례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예배 후에 나에게 항의하러 온 것이였다. 참으로 화가 난 모습이였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서서 경배하지 못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일어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의가 흩어지기 때문이지요. 회중이 당신에게 주의를 하게 되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규칙인가요? 성경에 어디 그런 규칙이 들어 있습니까? 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유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런 자유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일어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켰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 시킨 것에 해당합니다 라고 나는 알려주었다. 그녀는 계속 자기 주장을 폈다.

I said, Look, why don't you go to the Vineyard? Because they stand up there. That's where the practice sort of originated. So why don't you go over there and worship there? They're good people. They love the Lord. They do things that we wouldn't do. To me they're a little far out and weird but I love them and they love the Lord and they're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But it's good that there is a place where if she feels she wants to stand up and all, that she can go. She doesn't have to come here. And so, God has a place for the different churches to attract and appeal to the different temperaments of people.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자매님, 비냐드 교회로 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예배 습관이 거기서 시작되었답니다. 그리로 가시면 선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좀 괴팍하고 과격적인 사람들입니다만, 저는 그들을 좋아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녀는 굳이 우리 교회로 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갖가지 교회를 이 땅에 두시는 것은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다.

But we shouldn't be divisive. We should see the whole body. We should see the oneness of the body of Christ and we should seek to promote that oneness of the body of Christ by loving all that are in the body.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열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의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몸이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The Lord's been doing a real work in my life in this issue. I used to be a rabid anti-Notre Dame. I mean, anybody that beat Notre Dame I was all for. And it was the old Catholic-Protestant thing. Not any more. I share a lot of faith with the Catholics. Not everything, I have definite differences. But yet we share so much in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so God is helping me to, maybe it's age or whatever but, to mellow out and not to insist that everybody see it as I see it or believe it as I believe it. But to just see the oneness and the unity, and to seek for the unity in the whole body of Christ.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내 삶을 참으로 진지하게 다뤄 오셨다. 나는 노틀담을 극렬히 반대하던 사람이였다. 누구든지 노틀담을 박살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를 적극 지지했을 것이다. 그것은 케케묵은 구교의 잔재에 지나지 않았다.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구교의 것과 공통된 점이 많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좀 유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시고 있는 듯하다. 이제 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보는 대로 봐야 하고 내가 믿는 대로 믿어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며 단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단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I would hate to be guilty of really bringing division in the body because then I would be working directly against the prayer of Jesus who is praying that we might be one. 나는 몸의 분열을 초래하는 범 죄를 참으로 증오한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that the world might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17:21).

That oneness of the body that we might be a witness to the world that Jesus Christ indeed is the Son of God, sent into the world. 몸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 사실을 증거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And 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17:22);

That's pretty strong statement. He is willing to share His glory with you. He wants to share His glory with you. "Come, ye blessed of the Father," He said, "inherit the kingdom that's been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Matthew 25:34).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1 John 3:2), "and if sons, heirs; and if heirs, then we are joint heirs with Jesus Christ" (Romans 8:17). He is willing to share the glory, the inheritance with you. "The glory which Thou gavest to me I have given to them," 이것은 극히 강력한 진술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흔쾌히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 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4).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요일 3:2).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롬 8:17). 그분은 기꺼이 영광을, 유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that they may be one, even as we are one (17:22):

Even as the Father and the Son are inseparable, one thought, purpose, action, activity; so He wants us to be one. 아버지와 아들은 생각, 목적, 행동, 활동에서 모두 하나가 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

I in them, You in me, that they might be made complete or perfect in one (17:23);

No one church, no one denomination is complete or perfect. We all need each other. We're all a part of the total. But it takes all of the parts to make the whole. And we need to recognize that and to see that and to acknowledge and to live by that.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나 완전한 교단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전체의 일부분일 뿐이다. 그 모든 부분이 모여야 전체를 이룰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식해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have sent me, and has loved them, as You have loved me (17:23).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John 3:16). Father, that they might know that You love them, just like You love M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 주소서.'

Father, I will that they also, whom thou hast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17:24),

Father, I want them to be there. I want them to behold My glory. You remember when Peter and James and John were with Jesus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and His garments began to glisten like there were lights behind them. White and glistening. There appeared Moses and Elijah talking to Him. And so Jesus had said, Not all of you are going to die until you see the Son of man in glory. And then He took them up in the mountains and they saw Him glorified. His desire is that you might see Him in His glory. The glory of His reign, His eternal reign. The glory that shall be bestowed upon Him when He completes the work of redemption by laying claim to that which He purchased, the redemption of this world. "That they might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ight behold My glory," '아버지여, 나는 저희가 거기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 위에 머물던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때 그분은 저희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그분의 옷은 마치 뒤에서 빛이 나오거나 하는 것처럼 번쩍이기 시작했다. 밝고 희게 빛이 났다는 말이다. 그러던 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몇몇 사람은 죽기 전에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으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분 자신이 영광에 싸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영원한 통치에서 나오는 영광을 보게 되기 원하신다. 그 영광은 그분이 구속 사역을 마치실 때 그분께 부여될 것이다. 이 세상을 구속하신 그분은 자기가 산(買) 것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실 것이다. “저희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which thou hast given me: for You have loved me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17:24).

Always have loved me but that You've loved them, too. Like You love Me. ‘당신은 나를 언제나 사랑해 오셨으며, 나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사랑하셨습니다’

O righteous Father (17:25),

Earlier, “O holy Father.” Now “O righteous Father.” 앞에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신다.

the world has not known thee: but I have known thee (17:25),

Isn't it interesting so often the world thinks they know Him? Isn't it interesting all of the false concepts that people have concerning God? The wrong ideas that they have concerning God? Satan has surely been out working overtime to distort the truth of the nature of God in the minds of people. And they really don't know God. So often they think of God only in the terms of fierce judgment, harshness, hardness. And they don't know that He is a compassionate, merciful, gracious God. They really don't know You, Jesus said. “But I have known You,”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그런 모든 거짓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왜곡된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을 쓰고 있다. 실은 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흔히 가지게 되는 관념은 무서운 심판, 까다로움, 고약함 등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아버지를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and these have known that thou hast sent me (17:25). And I have declared unto them Your name, and I will declare it: that the love wherewith thou hast loved me may be in them, and I in them (17:26).

Sort of the final petition here. I've declared Your name, I will declare it. For what purpose? That the love wherewith the Father loves Him may be in us as Jesus dwells in us. What a beautiful, beautiful prayer. The prayer of our Lord for Himself, for His disciples, and for us who have come to believe in Him. 여기서 주님은 마지막 간구를 올리신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기도인가.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리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 장차 그분을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리셨다.

Father, we thank You for Your love. Your love for Your Son. Your love for us. And Lord, we thank You that we have this hope of being with You to behold Your glory, the glory that You had before the world ever was. To be there around the throne, to join with that innumerable multitude as they worship the Lamb and Him who sits upon the throne. Lord, how empty this world is. How shallow are its joys. How fickle is its fame. But Lord, You endure. Your word endures and the glory is Thine forever and ever. Lord, draw us into an ever, deeper and deepening relationship. Draw us to yourself. Fill us with Your love and with Yourself.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이 소망을 인하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광은 창세 전부터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던 것입니다. 보좌 주위에서 거하게 되는 것, 무수한 무리와 더불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주여, 이 세상은 얼마나 공허한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은 얼마나 알팍한지요. 그 영예는 얼마나 덧없는지요. 하지만, 주여, 당신은 영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도 영원하고 당신의 영광도 영원무궁합니다. 주여, 우리와 더불어 보다 더 깊고 언제나 깊어만 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당신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아니 당신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